

미국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1-11)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다. 재판은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사도바울되게 하는 또 하나의 언약이었다. 근본은 그리스도를 충격으로 만난 그 사건이다. 이제 그것과 함께 정말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한 것이 로마이다. 원리는 꼭 같다. 사도바울의 로마는 우리의 미국이다. 우리도 시대적인 복음 그리스도를 가졌다.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비밀, 그리스도를 로마에 증거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들어와서 내게 또 하나의 언약이 되어 이것을 위해 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아주 틀림 없는 사실이다. 전부 응답만 받으려는 이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막혀 있는 인생의 모든 담이 무너질 것이다. 성령은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미국이 눈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러면 그 미국의 사람이 된다. 사도바울은 로마의 사람이었다. 오늘 예배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우리는 OURS라는 단어를 잘 안다. Only는 유일성을 말하는 단어이다. Unique라는 단어는 유일성, Recreation은 이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다. 7렘넌트가 다 그랬다. 우리도 이런 인생 살수 있는 것이다. 평신도 중직자 중에서도 이런 응답과 증인의 인생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적당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신앙생활을 오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인생에 반드시 중대한 증거를 본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예배와 기도를 예사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고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과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된다고 원망할 이유 없다. 나를 고치면 된다.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고치면 된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안 맞는다. 이유는 이것 하나 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 뿐이다. 안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더 크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거 고치면 된다.

한국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왜 안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그 분들 중에는 드디어 결심하고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간다고 한다. 목사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은 영어로 성경공부하는 곳에 간다는 것이다. 나쁜 것은 아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는게 나쁠게 없다. 신학을 깊이 아는게 나쁠거 없다. 원어로 성경공부 하는게 나쁠 이유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증거가 나타난 사람은 나는 못 봤다. 나중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집착이 되어 부작용 나는것만 봤다. 이런 분들 중에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증언되어 제자 키웠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기도해서 복음운동 일어나서 지역 정복하고 지교회 했다는거? 들어본 적이 없다. 나도 이유를 몰랐다.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뭔가 다른데에 기웃거리는 것이다. 사실은 방향이다. 답이 없어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는 것이다. 발버둥친다고 치는데 그렇다. 그리스도가 안되서, 답은 그리스도이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이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1. 미국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사도바울은 재판 진행중에 있다. 나중에 이런 저런 일이 있는 후에 밤에 사도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것을 말해야 한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이야기기를 했다. 내가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바울이 스스로 한 말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줬을 것이다. 그것을 고백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기록이 없으니 마음으로 오셨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 니가 이일을 로마에서도 해야 한다. 사도바울 머리 속에 또 하나의 언약으로 잡혔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일을 했다. 시대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크게 일어났다.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은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한 사람은 한명, 바울이다. 이 일을 동네에서 한게 아니라 큰 나라에서 했다. 그래서 큰 복음운동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큰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미국이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수 있다. 왜 할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전달하기 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잡았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복음운동 뿐이다.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태양도 돌리신다. 그것은 복음운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복음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다. 안되어질까? 나는 된다고 믿는다. 아직 미미하다. 사도바울도 혼자서 시작했다. 할수 있다. 이 눈이 들어와서 이 흐름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우리는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에서 살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참 중요한 축복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영적 문제가 심각한 나라, 뿌리를 내려서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음은 모든 문을 다 열수 있고 어떤 벽도 무너뜨릴수 있다. 아무도 멈출수 없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살고 있다. 가장 큰 인생을 살 수 있다. 아주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큰 교회 될 수 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이다. 이 복음이면 모든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 사단의 머리는 반드시 깨진다. 믿는가?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다. 믿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로마에서도 전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트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 눈에 가치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미국에 살게 하셨다. 어느날 이 그림이 내 눈에 들어오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5장 이야기 잘 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렸다. 지도 지나갈줄 알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만 지나갔다. 이것은 내 언약이야. 내가 지킬거야. 너는 이것을 통해서 축복이나 받아라. 그리고 이 일의 증인되라. 내 언약을 위하여 니가 할 일은 없어.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하나님, 이것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고 미국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버리니까 손들어버리는 것이다. 지 힘으로 하니까. 언약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소원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영적 전쟁하고 응답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자꾸만 내게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의 사람으로 자꾸만 바뀌어 가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구분이 안된다. 하나님의 소원인지, 나인지. 이것이 원네스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차이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생각과 내 소원이 틀리지 않고 같다. 그러면 하나님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어진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세월 지나서 어느정도 체질이 되면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24시이다. 그 때 모든 것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것이 누림의 목표고 기도의 목표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미국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교회 안에는 아직도 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 학교에도 많은 제자들이 남아 있다. 엇그제, 김정난 성도님이 소개한 어떤 유태주의 히스패닉 목사님을 만났다. 자기 교회는 한 80명 정도

되는데, 유타주에서는 그정도면 큰 교회라고 한다. 하도 물문이 여겨져서 많이 있어서. 코너마다 물문교회가 있다고 한다. 그런 속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가 거기에 간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마약에서 돌아오고 암이나 기타등등, 다시 한번 느꼈다. 고난 중에 깨닫는게 참 귀한 것이다. 이 교회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세 번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새벽예배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하면 못 견디다고 한다. 영적으로 놀라서. 새벽기도는 한국교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쿠바 갔을때에도 거기서도 매일 새벽기도를 했다. 그래서 몇가지 간증을 들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영적으로 우리보다 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 듣고 이야기 했다. 간증은 문을 여는데 좋다. 그런데 문 열고 난 뒤에는 뭐하냐? 우리는 이걸 한다. 문만 매일 열겠냐? 한 교회에 가서도 계속 말할게 있냐? 갈때마다 간증만 하면 누가 그 간증을 들겠냐?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다. 복음과 성경적 전도이다. 그래서 컨퍼런스 한번 하자고 했다. 5월경에 한번 하기로 했다. 자기하고 연결된 교회가 벤나이스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또 하나의 문이 되지 않겠나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대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게 뭐냐? 복음이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라. 나는 복음을 아는가? 나는 복음을 가졌나?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인데,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다. 이민 생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생각이 바뀌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면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이 열리고 결국은 정복하게 된다.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서게 된다. 문제를 누리는 것이다. 거기서 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고 그리스도인의 권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 이것이다. 이걸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몰라서 다른데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렇게 된다. 왜 그리스도를 누리야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수 있는 문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이다. 니가 미국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망대 교회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교회는 망대교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와서 구원받을 교회이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망대이다. 영원한 망대이고 근본 망대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배우고 현장으로 나간다. 우리가 또 하나 잡은 단어가 바로 안디옥교회이다. 안디옥교회는 복음을 가진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전세계에 전달한 교회이다.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적 전도 전략을 전 세계에 전달한 교회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근본을 가진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 영적의미를 두고 말하면 안디옥교회보다 더 의미있고 큰 교회가 없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출발교회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이다. 교회는 죽는데 나라는 살아나는 일은 없다. 세계사를 연구해보라. 교회는 죽어가는데 나라는 살아나? 그런 나라는 없다.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죽게 된다. 미국이 죽어서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어느

다른 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영향을 더 주면 어떻게 되나? 우리와 우리 후손은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운동 해야 한다. 아직은 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운동이다. 우리의 목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근본 언약이고 누림이다. 하나님의 소원, 즉 우리의 사명은 이 누림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한다. 이 근본적이고 깊은 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안디옥교회였다. 안디옥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았다. 전도자, 제자, 중직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다. 원리이다. 근본은 그리스도 언약이다. 이것 안에서 큰 인생을 만드는 답이 사명이다.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고 동네 다소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주 근본적이고 바른 복음운동 했을 것이다. 그러나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릇은 작았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했다. 근본적이고 정확할 뿐 아니라 크게 했다. 이것이 미국이다. 이 미국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정확하고 시대적인, 반드시 되는 답을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디옥교회. 남미의 안디옥교회, 시대적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다. 5월 말쯤 되면 니카라과에서 컨퍼런스를 다시 할 것이다. 중남미 6개 나라에 연결이 있는 분들이 모여 대표들이 성경공부반을 새로 만들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미국에도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나도 이런 제자가 되어야겠다 기도하기 바란다.

그리고 목상을 해보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진짜인가? 목상해보고 결론내고 이 흐름을 타는 역사가 있기 바란다. 이 흐름은 중단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미국에 복음을 전해서 미국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남미 끝까지 제자를 찾아 100팀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무도 중단 못 시킨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복음을 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근본이라고 말한다. 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응답이 오는가? 옛날에 신앙생활과 비교를 해보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이걸 알고 나니 기도가 10분의 일로 줄어들었다. 느낌상 아주 논다. 그러나 응답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온다. 근본은 알아야 한다. 기도 응답의 기본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근본을 알고 치유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전도와 선교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모르면 험낸다. 다른 것은 답이 아니니까.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해봐도 안된다. 불신자는 되는 경우도 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것이다. 마음이 안 바뀌고 세상, 인간중심으로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이다. 생각만 하나님과 통하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고 문 열리는데 이것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근본에서부터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5: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이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되라 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장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니가 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 만큼 완전해 지는거야. 내가 그 답이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안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답으로 보이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우리는 미국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미국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 더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응답의 근본이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 하나의 언약이다. 우리의 기도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기도응답을 위한 또 하나의 언약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위한 시대적인 망대들이 다 되기 바란다. 우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